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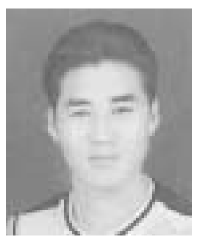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시 파워 블로거 등 전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 진행

순천 방문의 해 홍보 천만 관광객 유치 기대

순천시는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연이어 파워 블로거를 비롯한 부산, 대구등 대도시 주요 여행사를 초청해 순천의 유명관광지와 숨겨진 명소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되고 있는 팸투어는 순천만 국가정원, 낙안읍성, 선암사 등 순천시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청춘창고, 철도관사마을, 탐매마을, 금둔사 등 숨겨진 순천시의 명소까지 전국에 소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KTX를 타고 순천에 도착해 첫날은 청춘창고, 철도관사마을, 드라마촬영장,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고, 순천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죽도봉 공원에서 순천의 야경을 감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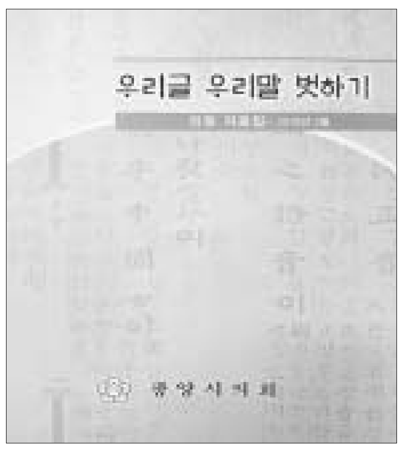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전국 5대 재래시장에 속하는 '아랫장'을 둘러보며 순천의 구수한 매력을 경험하고, 역사와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선암사, 낙안읍성, 금둔사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습지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다.

순천시관광과 채금묵 과장은 "최근에는 여행준비를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소개 글을 읽고 관광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파워 블로거들이 순천시의 숨겨진 관광매력을 소개했으면 한다"며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 팸투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찾아오고 싶은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전담여행사 운영,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등 관광객 유인시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관광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의회, '우리글 우리말 벗하기' 의정 자료집 펴내



광양시의회가 국어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시의원의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의정 자료집으로 '우리글 우리말 벗하기'를 펴냈다.

의정 자료집은 지난 1월 시의회에서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국어원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재와 국어 관련 도서를 참고로 평소 우리글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골라 자료집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우리글 우리말 벗하기'에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 국어의 어문 규정과 공문서 바로 쓰기, 보도자료 작성 요령과 각종 결의안·건의안 작성 사례 등이 이해하기 쉽게 실렸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공공언어 바로 쓰기, 자치법규의 입안 방법과 절차, 광양시의 조례 목록을 가나다 순과 부서 순으로 정리해 실용성을 높였다.

시의회는 이번 의정 자료집을 시의원과 의정 자료실, 광양시 공무원, 다문화가정 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광양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시민 열람용으로 시립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의회, '순천 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 위해 앞장

순천시의회가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19 순천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 강서구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김병진 강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따라서 협약내용으로는 순천시의회는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순천을 방문하는 강서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며, 강서구의회는 많은 구민들이 순천시를 방문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홍보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협약서 체결 이외에도 의정 발전 협의 및 의정활동 공유를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정책연구, 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호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보성군은 오는 4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청년창업가, '함께하는 광양살이' 주제로 강연

광양시는 '광양읍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청년창업가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함께하는 광양살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가 3명이 추진 중인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 내용과 연관된 주제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먼저 13일 이정현 1%공작소 대표의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시작으로 21일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의 '청년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 28일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의 '청년이 도시재생에 필요한 이유' 순으로 열린다.

강연은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오후 2시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제20회 구례산수유꽃축제 16일 개막

전국 최대의 산수유 군락지인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 산수유 꽃이 만개해 노란 꽃으로 물들었다.

구례군은 "구례지역 산수유 꽃이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이라며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열리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산수유 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20회 구례산수유꽃축제는 20주년을 기념해 특색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16일 17시 30분 주행사장 특설무대에 열리는 개막행사는 의례 의식을 간소화하는 대신 군민의 다양한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어 '스무 살 청춘, 산수유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산수유나무의 전래에서부터 산수유꽃 축제가 열리기까지 시대적 상황을 테마로 구성하여 영상과 무용, 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활력과 젊음을 노래하는 인기가수 '노라조'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주행사장을 비롯해 산수유사랑공원, 반곡마을 등지에서 전통과 현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40여 종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먼저, 16일 오전 11시 산동면 계척마을 산수유나무 시목지에서 산수유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구례향교 유림회에서 거행한다.

주제 프로그램인 '산수유꽃길따라 봄마중' 체험행사는 16일, 17일과 23일, 24일 각각 주말에 산수유문화관에서 산수유 사랑공원과 반곡마을 거쳐 주행사장의 체험마당까지 2시간여 꽃길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는 1인당 1만 원의 참가비를 내는데 5천 원은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또 '영원불변의 하트지 남기기'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나 소망을 하트지에 새겨 놓으면 이를 간직하여 매년 다시 전시해 준다.

산수유 떡 만들기 체험 경연 행사도 주행사장 체험부스에서 규모있게 펼쳐진다. 참가비는 팀당 2천원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전통방식의 떡 만들기 체험과 경연에 참여할 수 있다. 떡도 먹고 산수유도 받으며 즐길 수 있다.

공연행사도 풍성하다. 행사기간 중 tvN '쇼! 오디오자키' 공개 라이브 오디오 방송이 20일 방영된다.

주말에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축제장 진출입로의 정체 완화를 위해 진입 노선을 확대하고, 진출 우회도로는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구례=박진호 기자